

유사수신 영업수당, 회생절차시 반환해야



박규익 변호사의
도산법 바로알기

최근 코스피와 코스닥의 변동성이 매우 크다. 이럴 때일수록 일반 투자자들을 상대로 일명 주식·코인 리딩방을 열어 원금보장을 미끼로 돈을 받거나, 기존 투자자들에게 받은 돈으로 돌려막는 ‘폰지 사기’가 횡행한다. 이처럼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고수익이나 원금보장을 약속하며 투자자를 현혹해 자금을 조달하는 불법행위를 법적으로 ‘유사수신행위’라고 한다.

일반인이 이러한 유사수신행위에 빠져들게 되는 데에는 업체의 영업 담당자들이 큰 역할을 한다. 이들은 지인을 동원하거나 허위 정보를 남발하며 투자자와 친분을 맺고, 일정한 신뢰를 형성한 뒤 액의 투자를 유도한다. 유사수신행위의 행위는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되어 있으며, 설립부터 영업 전반에 걸쳐 금융당국의 관리·감독을 받는 정상적인 금융업체에 비해 기업 구조가 매우 부실할 수밖에 없다. 결국 이들은 당초 약속한 고수익과 원금보장을 커녕 투자금조차 반환하지 못한 채 파산에 이르게 된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유사수신행위만 아니라 그 영업 담당자들 역시 원망의 대상일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유사수신행위가 회생이나 파산 절차에 들어간 경우, 영업 담당자들이 챙겨간 수당은 회수할 수 없는 것일까? 최근 대법원은 “유사수신행위가 영업 담당자에게 지급한 영업수당을 회수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체적인 사건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채무자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들에게 최대한 변제한 뒤 청산하는 ‘청산형 회생계획’을 진행 중인 유사수신행위 A가 있었다. A사의 회생절차 관리인 B는 프리랜서로 활동하던 영업 담당자들을 상대로 “A사와 맺은 영업수당 계약은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며 이미 지급된 수당의 반환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영업 담당자들은 “해당 수당은 A사가 불법적인 유사수신행위를 실행하고 추진하기 위해 교부한 이른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고 맞섰다.

원칙적으로 불법적인 원인으로 재산을 급여하거나 노무를 제공한 때에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민법 제746조). 예를 들어 불법 도박 자금으로 돈을 빌려주거나 범죄 실행을 조건으로 돈을 건넨 경

우, 돈을 준 사람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불법 행위에 관여한 사람을 법적으로 보호하는 것은 법질서 전체의 이념에 반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법원은 영업 담당자들의 수당이 회수될 경우, 그 돈이 회생채권자(피해 투자자)들을 위한 변제 재원으로 사용된다는 점에 주목했다. A사가 영업 담당자들에게 불법 행위를 추진하는 수당을 지급했다. 이들을 반환받아 회생채권자들의 피해를 일부나마 복구하는데 쓰도록 하는 것이 공평의 이념과 신의성실의 원칙에 더욱 부합한다는 것이다. 또한, 영업 담당자들이 수당을 그대로 보유하게 방치할 경우, 범죄 수익이 고스란히 남게 되어 추후 유사한 범죄를 저지를 유인이 유지된다는 점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결론적으로, 유사수신행위에 관여해 받은 대가는 설령 자신의 노동력을 제공한 몫이라 하더라도 추후 반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처럼 회생 절차에 돌입하면, 채무자인 회사와 임직원이 한 행위나 제3자에게 지급했던 자금 등은 법원의 관리·감독하에 최대한 채권자들의 피해를 회복하는 데 사용될 수 있도록 엄격히 처리된다.

/법무법인 바른

멈춰선 안될 것은 공정과 공정

(工程) (公正)



기지수첩
이청하 (유통&라이프부)

4월 5일은 식목일이자 절기로는 청명이다. 24절기 중 청명(淸明)은 하늘이 맑아지고 땅이 풀리는 날이다. 예로부터 농가에서는 한 해 농사를 시작하며 ‘기본’을 다지는 시기다. 하지만 국내 바이오 산업의 들락에는 먹구름이 짙게 깔렸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노사 갈등은 심화되고 있다. 노동조합이 임금 인상, 성과급 배분, 인사권 합의 등을 제시하며 오는 5월 전면 파업을 예고하자, 사측은 법원에 쟁의행위 금지 가처분 신청을 청구했다.

양측 법적 대응의 핵심은 생산 공정 멈춤에 대한 설정으로 이어진다. 살아있는 세포를 다루는 공정(工程) 특성상 365일

가동은 필수적이고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 공급은 끊겨선 안 된다는 사측 논리는 분명 타당하다.

다만 배양기를 돌리는 것은 아직 사람이며 사람을 움직이는 동력은 공정(公正)의 연속성이다. 현재 노조가 내놓은 요구안에서 유독 눈에 띄는 대목이 있다. 회사의 중요 권한인 채용, 승진 등 인사권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배경은 무엇일까.

신약개발 명가라는 전통을 가진 한미약품에서도 최근 비슷한 긴장감이 있었다. 내부 승진 중심의 ‘한미맨’ 인사 기조가 깨지고, 창사 이래 처음으로 외부 출신 대표가 취임했다. 신입 대표는 첫 공식 행보로 제조 현장과 연구개발 센터를 방문하며 조직과 적극 소통하고 있다. 다만 앞서 전임 대표 역시 기존 임기에 맞춰 회사를 떠나며 토종 제약 기업의 신약개발이 계속되기를 바랐

고 남은 내부 구성원의 안위를 당부했다.

공정(工程)이 중단되면 세포가 죽고 공정(公正)이 흐려지면 사람 마음의 안녕은 깨진다. 이 원리는 제약·바이오 산업뿐 아니라 어느 조직에서나 동일하게 적용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격언은 진부하지만 강력하다. 경영진 권한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구성원도 그 결정에 따르는 책임감이 있기 때문이다.

청명의 농부는 가래질을 하고 독을 살핀다. 눈과 발의 흙을 고르게 하고 물이 새지 않도록 기초를 튼튼히 하는 작업이다. 조직도 마찬가지다. 리더와 구성원, 권한과 책임이 어떻게 균형을 잡아야 하는지 되새겨볼 시점이다. 특히 그 균형이 합리성을 잃고 치우치면 내부에 쌓인 애사심과 충성심이라는 독은 무너지고 아무리 우수한 기술과 전력이 있어도 제대로 작동할 수 없다.

/mlee236@metroseoul.co.kr

재미로 보는 오늘의 운세 4월 6일 (음 2월 19일) 표준토리(www.fortunetory.com)



48년생 노련한 만큼 운이 따르지 않으니 실망하지 마세요. 60년생 매사 서두르지 말고 신중하세요. 72년생 일을 너무 크게 벌이지 마세요. 84년생 현실에서 과감히 벗어나 보세요.



49년생 작은 일에 만족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61년생 기다릴 줄 아는 지혜가 필요할 때입니다. 73년생 일을 너무 크게 벌이지 마세요. 85년생 지금은 새로운 계획을 세워야 할 시기입니다.



50년생 성실하면 하늘이 도울 것이니 노력하고 기다려 보세요. 62년생 뒤로 넘어져도 코가 깨집니다. 74년생 남을 높인다면 가히 이름과 좋을 것입니다. 86년생 뜻밖의 제안을 받게 됩니다.



51년생 배움의 기회가 있다면 꼭 잡으세요. 63년생 불리하게 전개되니 상대방과 타협하세요. 75년생 모든 일이 잘 풀려 나가니 크게 성공합니다. 87년생 과음과식을 조심하세요.



52년생 신경쓰지 않아도 버리는 대로 이뤄집니다. 64년생 윗 사람을 공경하세요. 76년생 매사 불안하나 끝내 이뤄집니다. 88년생 어렵게 성사될 일도 아닙니다. 이뤄지고 앞길도 밝습니다.



53년생 노력에 결실이 있겠습니다. 65년생 모든 일에 긴장을 풀지 마세요. 77년생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 같으니 친새배필 만나겠습니다. 89년생 사방팔방에 운이 열렸습니다.



54년생 마음만 가득할 뿐 용기가 없어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66년생 좋은 기회는 여러 번 오지 않습니다. 78년생 억지로 이뤄지지 않습니다. 90년생 다음 기회로 미루어 보도록 하세요.



55년생 서두르면 눈앞도 잘 보이지 않습니다. 67년생 뜻밖의 손실이 생겨 뜻을 이루지 못합니다. 79년생 본인의 부주의로 가까운 사람에게 해가 있습니다. 91년생 대체로 원만합니다.



56년생 사람과의 교제에 구실이 있으면 안됩니다. 68년생 명성과 이익이 있겠습니다. 80년생 일이 쉽게 이루어지니 큰 이익이 있겠습니다. 92년생 능력있는 윗사람을 만나 해결할 수 있습니다.



57년생 할 일은 많은데 몸이 하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69년생 옛 친구를 멀리하지 마세요. 81년생 순리에 맞게 차근차근 시행하세요. 93년생 이성운이 매우 좋은 날입니다.



58년생 날로 번창하니 재물과 명예가 늘어납니다. 70년생 시간활용을 잘 할 때입니다. 82년생 여행 중 귀중한 물건을 분실할 실물수가 있습니다. 94년생 현 상태에 만족하고 더욱 노력하세요.



59년생 도처에 재물이 있으니 나가면 얻을 것입니다. 71년생 어려움이 닦쳐도 능히 이겨 나갈 것입니다. 83년생 동쪽 물가로 가지 마세요. 95년생 일에 진척을 살피며 천천히 진행하세요.

김상회의四季

로또 대박



로또는 인생역전의 대명사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복권사업이 인기지만 요즘처럼 로또복권 당첨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은 경제가 어려워진다는 것의 방증이다. 종종 듣지만, 돼지 꿈을 꾸었거나, 꿈에 조상님이 나타나서 점지해 준 번호를 기억하여 복권이 당첨된 예도 있고, 꿈에 큰불이나 물을 보고서 복권을 샀더니 당첨되는 일도 있었다. 즉, 좋은 일이 생기려면 일단 꿈에서 몽중가피나 예시를 받는다. 몇 년 전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로또 1등 당첨자 중 좋은 꿈을 꾸서 당첨되었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답한 사람들의 통계를 내보니 소나 돼지와 같은 동물 꿈이 27%로 가장 많았으며 2위는 조상님 꿈이었다. 그다음은 물, 불 관련 꿈이었다. 기운이 그렇게 흘러가니 꿈으로 선포되는 것이라.

사주팔자 차원에서 로또와 같은 복권에 당첨되는 것은 일단 행운이기도 하지만, 원래 갑자기 생기는 재물은 횡재(橫財)라 하여 조심스럽다. 전통적 의미로서도 횡재는 ‘가로운 재물’이라 하여 걸어서 넘어지는 형국으로 보기도 했고, 복권 당첨과 같은 횡재를 얻은 사람들의 말로가 좋지 못했다는 것 때문이기도 하여 일확천금도 받을 그릇이 되어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조상의 음덕으로 인해 생긴 큰 재물은 횡재라 보지 않는다. 더 예전에는 복권 당첨은 그야말로 인생역전의 행운이라 말할 수 있지만, 요즘은 세금도 최고 세율에다가 1등 당첨금액도 그리 크지가 않다. 물가가 올라간 탓도 있고 무엇보다 부동산 가격이 엄청나게 올랐기에 복권 1등이 당첨되어도 강남의 보통 평수 아파트 마련도 어려울 정도의 금액이다. 복권 당첨 후에 흥청망청 쓰다가 가족도 잃고 다시 빈털터리가 되는 횡재의 징크스에서 벗어나야 할 바란다.

‘김상회의 사계’에서는 애독자를 위해 전화·방문상담을 해드립니다.

김상회 역학연구원 02) 533-8877 / www.saju4000.com

매일매일 두뇌트레이닝 새벽학원

스도쿠365

3X3 �도쿠 X는 가로세로 3X3박스에 1부터 9의 숫자가 대각선 회색 9X에 1부터 9의 숫자가 겹치지 않게 푸는 퍼즐입니다.

문제출제: 손호성
새로운 크리노이드의 월드리움을 즐겨보세요
<http://www.argo9.com>

할인도서

1	7		4	2		9		3
	3					9		
		9						7
		4	5					2
	6							9
7					6	4		
2						5		
		2						3
6	5		8	7			2	4

			2	4				8
1							4	
	8	4	6	1			9	
2							5	9
		8					7	
3	9							6
		2		6	7	3	1	
		3						8
6		3		5				

7	2	1	2	8	8	9	6	9
6	8	9	9	1	2	2	7	8
8	2	9	7	6	9	8	1	2
1	8	7	9	8	6	2	9	2
9	6	2	2	8	1	9	8	
2	9	8	1	2	5	7	8	6
2	7	8	8	9	1	6	2	9
9	1	2	6	9	2	8	8	7
8	9	6	8	2	7	9	2	1

7	2	2	9	6	8	1	9	8
8	6	9	2	7	1	8	2	9
9	1	8	2	9	8	2	6	7
9	7	8	1	6	2	6	9	8
1	2	2	6	8	9	8	7	9
6	8	9	9	8	7	2	1	2
8	9	6	8	1	9	7	8	2
8	9	7	8	2	6	9	2	1
2	8	1	7	5	2	9	8	6

metro 메트로미디어

서울시 종로구 자하문로17길 18. TEL:02)721-9800, FAX:02)730-1551

발행·편집인	이장규	편집국장	윤휘중
인쇄인		중앙일보(주)	
광고문의 / 독자센터	02)721-9851, 9826 / 02)721-9861		
일간 메트로	서울 가0206 2002년5월28일 제5886호		
일간 메트로경제	서울 가50111 2017년3월09일 제1990호		

본지는 한국신문윤리위원회의 서약사서로 신문윤리강령을 준수합니다.